

테마만남 | 글쟁이를 만나는 즐거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

# 내 삶의 원천은 뜨거운 가슴으로 실천한 ‘용기’입니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46) 교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목은 ‘용기’다. 그가 살아 온 삶의 원천은 바로 용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펼쳐지는 물고기처럼》《핑》《빙산이 녹고 있다고》《에너지 버스》 등의 번역서와 《길거리 학습특강》《아나디지다 Being AnaDigi》《죽은 기업교육, 살아있는 디지털 학습》《e세상 e러닝》《행복 비타민과 생태학적 HRD》《지식생태학: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포스트 경영》 등의 저서에 이어 올해 4월에 출간된 《용기》까지 합하면 유 교수가 번역하거나 지은 책이 40권이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40이라는 숫자는 부족하다. 나이만큼 책을 써나가고 싶었고, 올해 말에 50권 쯤의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 었기 때문이다. 마흔 번째 책인 《용기》의 뒤를 이어 변화관리에 대한 책과 경영우화집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4월 11일. 유 교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승용차가 전복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를 넘나들었다. 한양대 연구실에서 만난 유 교수는 왼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혈색이 밝아 보였다. 이번 사고로 소소한 일상이 안겨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됐다.

유영만 교수의 명함에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외에 ‘지식생태학자’가 쓰여 있다. 명함에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지식산부인과 의사’, ‘학습건강전문 의사’로도 불린다. 즐거운 학습, 건강한 지식으로 보람찬 성과를 내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네 가지 요소는 학자로서 연구해야 할 화두이다.

최근 저서인 《용기》가 베스트셀러 10위 안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에 대해 그는 ‘감동’을 들었다.

“개론서를 읽고 감동받은 사람을 없을 거예요. 저도 개론서로 《교육공학개론》을 썼지만 개론서의 특징은 자기주장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글을 짜깁기한 인용의 마술이죠. 개론서의 장점은 논리적 분석, 즉 이성적 패러다임이 강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스토리텔링의 자기계발서는 저자의 체형적 스토리와 주장으로 독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스포츠 광고를 보세요. 광고로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젊음과 야망 등의 스토리를 팝니다. 즉 논리적으로 설명해 호소하기 보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쓰고 있어요.”

유 교수가 썼던 《핑》을 읽은 후 그를 무작정 찾아 온 출판사 편집자가 “‘용기’ 있는 도전을 한 것”이라며, “자기계발서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맥을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시골에서 상경한 유 교수는 수도공고를 졸업한 후 한전에서 2년간 근무하다 한양대에 입학했다. 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5년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1998년에 삼성인력개발원에서 퇴직해 안동대를 거쳐 2001년 2학기부터 모교인 한양대 강단에 서기까지. “당장 그만두더라도 공고에서 전공한 용접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그의 인생은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린 순간들의 집합체다. 《용기》에서 나오는 ‘외나무다리’와 일곱 가지 용기와 관련된 ‘사자성어’ 등 책의 구성을 짤 때도 그가 살아온 삶을 용기라는 키워드로 적용해 메타포로 표현했다.

그의 연구실에는 많은 책들이 뽀뽀하게 들어 차 있다. 연구실 한 복판에 있는 널따란 책상 위에도 신간으로 보이는 책들이 키 자랑을 하듯 쌓여 있었다. 주말에 각 일간지의 북 섹션을 보고 제목이 필에 꽂히면 책을 구입하는데, 한 달에 신간 구입비만 최소 50만원이다.

유 교수는 “용기란 ‘Heart’”라고 한다. 기자에게 “‘고민’과 ‘고통’의 차이를 아느냐”고 묻는다. “고민은 머리로 하는 것이라면, 고통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 이란다.

“용기란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거창함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